고품격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통권 제31호 I 2012. 2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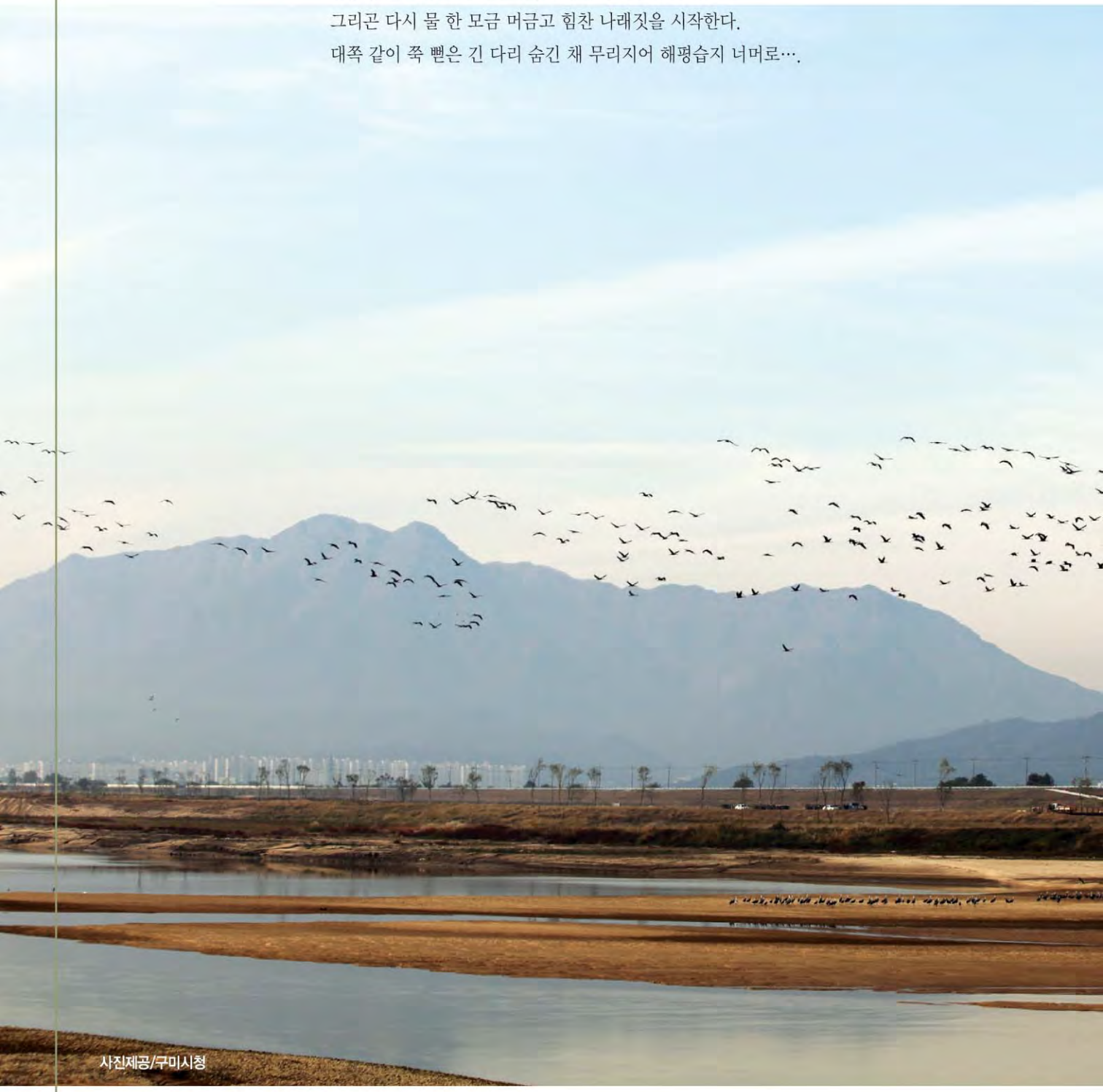
COVER STORY / 남유진 구미시장
핫이슈 구미 / 구미, 국내 최대 첨단IT도시 자리매김
포커스 리딩 / 고졸인재 채용 올해 재계 '핫이슈'
법령해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투게더 피플 /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결같은 이웃사랑 '훈훈'
지자체는지금 / 대구·경북 대표 축제 문화관광축제에 잇달아 선정
이슈&뉴스 / 대구·경북 상장주식 회전율 시장별 명암 교차

Photo Essay

구미 해평습지

글·이한나 기자

내몽고 찬바람 헤치고 흑두루미 떼가 찾아왔다.
낙동강 물줄기 굽이치는 해평습지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그리곤 다시 물 한 모금 머금고 힘찬 나래짓을 시작한다.
대쪽 같이 쭉 뻗은 긴 다리 숨긴 채 무리지어 해평습지 너머로….



사진제공/구미시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1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홍순대 | **전문기자**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활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ontents

02 _ Photo essay / 구미 해평습지

04 _ News wide / 행정수수료 대폭 인하

06 _ Economic trand / 대구·경북 올해 경제성장률 3% 후반대 전망

08 _ Cover story / 남유진 구미시장

12 _ 핫이슈 Gumi / 구미, 국내 최대 첨단IT도시 자리매김

14 _ Focus reading / 고졸인재 채용 올해 재계 '핫이슈'

18 _ 법령해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20 _ 투게더 피플 /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결같은 이웃사랑 '훈훈'

21 _ 장바구니 물가 / 소비자물가 다시 들썩

22 _ Wonderful Gumi / "볼거리 많은 구미로 오세요"

24 _ 회원사 줌인 / 대구 대표 청국장 요리전문점 '송원식당'

26 _ Gumi 특산품 / '웰빙 축산물' 전국적 명성

27 _ Trevel sketch /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

28 _ 재테크 / 지난해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 곤두박질

30 _ Life style / 대구백화점, 남성고객잡기 분주

32 _ 지자체는 지금 / 대구·경북 대표 축제 문화관광축제에 잇달아 선정

33 _ 이슈&뉴스 / 대구·경북 상장주식 회전율 시장별 명암 교차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경북 '귀농 일번지'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 청 방 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 금 계 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행정수수료 대폭 인하

오는 7월부터 2013년까지 행정수수료 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의 행정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최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행정수수료는 총 150건에 달한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5년 복수여권 수수료도 2천원 인하된 3만3천원으로 조정된다. 같은 기간 여권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 수수료도 현행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10년 복수 여권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 건수는 290만건으로 집계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여권 발급자 부담을 대폭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는 아울러 전국 40개 국립대학 입시전형료도 올해 상반기 중에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문화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전형료는 올 7월부터 1, 2차 시험에서 각각 5천원씩 인하된 8만원과 7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1만명 가량의 응시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5개 시험도 내년 7월부터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3만2천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1, 2차 시험은 지금보다 각각 1만원, 2만2천원 인하되고, 사회복지사 1급과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도 1만7천원, 1만원, 3천원씩 내린다. 교통안전관리자도 1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 150건의 수수료가 인하되면 이용자 부담은 지금보다 117억원 이상 줄어들고, 연간 700만명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값 안정 대책 강화

정부가 소값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도태를 늘리는데 예산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쇠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소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쇠고기 소비 및 수요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생산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쇠고기 수요를 늘리기 위해 2월부터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군납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고 한우 암소 도태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지급하던 보전금을 가임암소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의 과잉 · 과소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적정 가임암소수를 90만~100만 마리로 설정하고 110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태장려금은 한우사육두수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미경산우(처녀우) 또는 1~2년산의 젊은 암소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미경산우의 경우 50만원, 60개월령 이하 암소에는 각각 30만원씩 도태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가격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리고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2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70% 상반기 조기 배정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지었다고 최근 밝혔다.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 수준을 조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예산배정률 70%(197조7천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 282조6천873억원 가운데 1분기에 44.1%(124조6천684억원)를, 2분기엔 25.9%(73조2천785억원)를, 3분기와 4분기엔 18.5%(52조2천926억원)와 11.5%(32조4천478억원)씩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집행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매달 2차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환경부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개발예정지 부근의 법령상 규제, 보호 야생 동·식물, 문화재보호구역 등 입지 제약요인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게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검색, 판단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만하더라도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시 공장 등 사업예정지의 환경 규제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개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번 서비스는 크게 환경질 측정자료, 국토환경성평가정보, 문화재정보 등 3개 분야에 정보가 제공된다.

이 중 환경질 측정자료에는 멸종위기동·식물, 대기질, 소음, 진동 등 9가지를, 국토환경성평가정보분야에는 법적보호구역 14개, 수질환경규제지역 11개, 기타 규제지역 27개, 환경생태정보 13개 등 65가지를, 문화재 규제정보분야에는 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4가지를 각각 지원해준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웹페이지(www.eiass.go.kr)에 접속해 초기화면에서 '사전입지자가진단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손쉽게 자가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시스템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상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욱 정책전문기자

대구·경북 올해 경제성장률 3% 후반대 전망

서비스산업 둔화세 예상…제조업 생산은 회복세 '확연'

올해 대구·경북의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지역의 2012년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대구와 경북의 서비스 산업 성장세는 소폭 둔화세를, 반면 제조업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희비 교차

올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성장률은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우선 포항 중심의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방 수요산업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예상했다. 내수부문 역시 건설경기 회복세가 완만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철강 제품 수요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IT산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올 7월 개최되는 런던올림픽 특수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대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디스플레이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의 중심축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되면서 3D,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산업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이와 함께 LED와 이차전지, 광학기기산업도 경기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SW산업(Application)은 지역내 산업 기반이 미약한 때문에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업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내다봤다.

국내 대표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 부품업체의 공장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신흥국에서는 수요 확대를, 반면 유로존 신용경색이 가중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발주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계장비는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수출은 중동 및 아시아지역에서 공작기계(금형)업종 등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여파로 수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전통 강세산업인 섬유업종의 경우 국내·외 스포츠·레저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제2의 도약을 위한 호기(好機)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산업용 등 비(非)의류제품의 수요도 동반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것도 관세혜택 등 지역 섬유업계에선 큰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유통산업은 올해 경기가 그다지 신통찮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소매점 매출이 경기둔화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아울러 의류 유통업과 외식업 매출 증가세도 지난해에 비해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 소비지 인근의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시장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동시에 최근들어 자영업자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프랜차이즈시장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대경본부 측은 "각 산업별 경기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올해 대구·경북의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최근 발표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3.7% 전망치보다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대응방안은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대구·경북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 경량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수요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수요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간접 수요 유도 및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T산업에 대해선 대기업 IT기반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부품 소재 및 첨단 서비스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연관산업과의 기술 융합과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글로벌시장 공략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한은 대구경북본부 측은 FTA 체결 등을 활용한 전략품목 수출을 늘리고, 연비개선 부품 개발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 다각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능형 자동차부품 등 안전장치분야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접목을 통한 주력 제품 다양화를 통한 멀티옵션 전략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선 한미FTA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굴삭기시장 진출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계부품 관련 헤드쿼터형 대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설비 개보수 등 서비스시장 참여 확대 △핵심 생산설비 개발 및 설계기술 고도화 △R&D 투자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섬유산업의 경우 산업용 제품개발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하고, 환율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스트림 기업간 협업생산을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선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 닛치 상품개발과 공격적 마케팅 등 차별화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거버넌스 체제를 통합,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정책 협의체의 실효성 제고 노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책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포상 산업전문기자

남유진 구미시장

학력 경북고 졸업
서울대 철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 수료

경력 제 22회 행정고등고시
경북 청송군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국장
구미시 부시장
민선 4기 구미시장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국장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 한국대표

상훈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한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CEO대상
포스트모던 신인문학상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저서 미국정치와 행정
미국지방자치의 이해

국내 대표 내륙수출도시인 구미시가 IT산업 기반의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진입을 본격 예고하고 있다. 이런 성과 밑바탕엔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 남유진 구미 시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민선 4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남 시장은 취임 이후 구미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구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하이테크밸리지구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장군이 기세를 부린 지난 1월26일 구미시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남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헌신하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살기좋은 도시 구미 만들 터”

일문일답

Q 임진년 시정 운영 방향은?

A 구미시는 희망찬 인구 50만 구미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 올해 시정추진 사자성어를 '달리는 말은 말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로 정했습니다. '마부정제'의 참의미를 되살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일자리 2만6천여개를 새로 창출하고,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2조7천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륙 최대 수출도시인 구미의 위상에 걸맞게 수출 또한 330억달러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일궈냈습니다.

지난해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임진년 올 한해 변화와 희망, 그리고 혁신의 기치 아래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올 한해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선?

A 구미시는 지난 한해 유로존 신용경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미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새 희망과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장(市長)인 저로서는 그래서 대망의 2012년 올 한해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일군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시키는데 역점을 둔 시정을 펼쳐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구미의 미래 먹을거리 동력으로 기대되는 국가산업단지 5공단을 조기 착공하는 동시에 이 곳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탄소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4천91억을 투입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1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국가산단 1공단을 집적화단지, 전자의료기기생산단지, 산학융합지구 등 총 7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견인할 수 있는 초석(礎石)으로 삼겠습니다.

시는 나아가 옛 금오공대 부지를 IT 융합기술단지와 산학융합지구로 조성해 근로자의 일터, 배움터, 쉼터가 어우러진 최적의 기업환경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Q 하이테크밸리 조성시 시너지 효과는?

A 하이테크밸리지구는 기존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첨단산업밸트 거점지역으로 조성·육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1세기 차세대 성장 유망업종과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집적화해 환경(Environment)과 에너지(Energy), 경제성장(Economy)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3E 상생의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와 연계해 IT 및 녹색성장산업 기반의 구미산업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지요.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생산유발효과만 30조5천758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10조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용유발 효과도 22만명에 이를 것으로 구미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성과는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도레이첨단소재(주)와 1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STX에너지 역시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나서기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1조8천82억원이 투입되는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오는 2014년 최종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내륙 최대 첨단산업 기반의 수출도시인 구미는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광학, 전자의료기기, 항공전자부품 등 최첨단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 대표 녹색성장 중심도시 육성 방안에 대해선?

A 우선 올 한해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새롭게 단장된 낙동강을 중심으로 명품(名品) 수변도시로 재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 수변복합레저파크 건립사업, 지산수우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당 최대 600억원을 들여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명품수변도시 구미를 만들겠다는 게 구미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생명과 자원의 보고(寶庫)인 낙동강을 시민의 뜻을 모아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설계해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가꾸기 위한 밑그림도 차질없이 그려나가겠습니다. 구미 슬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을 건립하는 한편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 대표 탄소 배출 제로 도시로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근린공원과 복층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등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Q 주민 복지정책에 대해선?

A 시정 최우선 가치를 시민들의 행복으로 삼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주민복지사업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올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미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초·중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기준으로 교육경비 23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해 지원금 규모만 무려 33배 증액된 것입니다.

구미시는 아울러 지난해 2학기부터 초·중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기반의 무상급식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전체 학생은 물론 동지역의 최저생계비 160%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체 학생의 28%인 1만4천여명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책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

성하는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총 8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5세아 무상보육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통합지원기관인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드림스타센터 조성 사업을 원평 1, 2동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Q A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보다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승마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먹여살릴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필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복안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단락 지을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등을 통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길이 25.1Km에 달하는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도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 지을 복안입니다.

Q A 경북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선?

오는 5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경북도민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해 구미시민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전을 펼치는 올해 도민체전에서는 총 24개 종목에서 선수단과 임원만 3만5천여명이 참가하는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하에 따라 스포츠 도시 구미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호기(好機)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구미의 저력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A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2년 임진년 올 해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열린 시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대화 행정'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주민들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명품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헌신하는 시장(市長)이 되겠습니다.

대담=서기대 편집국장
정리=장승욱 정책전문기자

구미, 국내 최대 첨단IT도시 자리매김

해외기업 유치 순항…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주력

구미시가 첨단IT산업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전자,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IT제품 내륙 최대 수출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IT융합기술단지 및 QWL 밸지지구 조성, 국책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도시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2의 비상(飛上)을 꿈꾸고 있다.

글로벌 기업유치 총력

구미시는 성장 동력의 큰 축을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태양광, 탄소섬유, LED, 2차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구미시는 올해 투자유치 목표 구호를 '구미공단 체질 강화'로 정했다.

글로벌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를 통해 구미공단의 체질을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포석에서다. 구미시는 특히 일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대지진이후 해외 사업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현지 첨단기업들이 적잖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투자유치 실무협의단을 파견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구미시는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 기(旣)투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가시적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올 연초 기준으로 전체 투자유치목표액(10조원)의 44.7%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중 지난해 투자유치 성과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로존 신용경색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조7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것은 물론 4천313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다. 해외 투자유치 성과 중에는 굵직한 기업들이 유독 많았는데, 특히 일본 도레이사(社)의 경우 구미하이테크밸리에 1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구미의 차세대 성장동력 축이 될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첨단기업 유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구미시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 인프라 구축 가속도

구미시는 첨단 IT산업도시를 일궈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구미시 신평동의 옛 금오공대 캠퍼스에 조성될 예정인 IT융합기술단지 및 QWL 밸지지구 조성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총 사업비 4천300억원을 투입하는 IT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전자의료기기, 3D부품산업 등 총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완공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QWL밸리 조성사업' 역시 연합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총 8개 사업에 510억원을 투입해 산학융합지구로 새단장하는 등 구미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바일산업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태양광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3D, 스마트센터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거점 인프라로 조성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아울러 국책사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천33억원을 투입하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조성사업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센터는 준공된 이후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개사에서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해당 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만 연간 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구미시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미시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1천213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IT부품소재 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해 구미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내륙 최대 수출기지로 도약

'수출도시' 구미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IT제품 내륙 최대 수출전초기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350억달러로 늘려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330억달러에 비해 6.1% 늘어난 것이다.

구미시는 또한 올해 생산 목표액도 지난해(75조원)보다 6.6% 증가한 8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올 한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기반선점,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통해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낙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최근들어 국산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반도체, LCD, 전자제품, HDD 등 주력산업인 IT제품의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FTA가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힘을 보태고 있다. 관세혜택 등에 힘입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 IT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포상 산업전문기자

고졸인재 채용 올해 재계 '핫이슈'

한화·삼성그룹 등 대기업 적극 동참 … 지자체도 학력차별 철폐 '앞장'

"학력 차별없는 사회로 다가설 수 있을까"

재계에 고졸인재 채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고졸인재 채용은 호텔, 외식업 등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과 조선,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話頭)가 될 전망이다.

조선업·금융권, 지난해 고졸 채용 확대

고졸인재 채용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학력차별 철폐를 강조하면서 은행, 조선업계 등 재계 전반에 고졸 인재 채용 바람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고졸 인재를 가장 많이 뽑은 곳은 금융권과 조선업계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사무·기술직 고졸 인재 110명을 선발해 화제를 모았었다. 그간 대기업에서 대졸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관리직 자리를 고졸 인재가 꿰차면서 학력차별 철폐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앞서 고졸사원은 주로 생산직에 배치했고, 대졸 위주로 관리직을 운영해왔다. 고졸 인재를 중용하기로 한 것은 우수 인재를 채용해 중공업 전문가로 키우겠다는 포석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위해 회사가 마련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경험을 쌓으면 대졸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선업계 중에선 STX그룹도 동참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고졸 및 초대졸을 대상으로 관리직 공채 선발에 나서 총 52명을 채용하고, 어학, 직무교육 등을 걸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키워 중용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고졸인재 채용에 적극 나섰는데, 지난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린 '상고바람'이 지난해 다시 한 번 몰아친 셈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산업은행이 신입행원 중 3분의 1일을 고졸 인재로 발탁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도미노처럼 확산됐었다. 산업은행이 고졸 행원을 채용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8명을, 신한은행도 특성화고 출신 인재를 5명 채용했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20명, 10명씩 선발하는 등 지방은행에서도 고졸인재 채용 문턱을 낮췄고, 농협도 고졸직원 30명을 뽑았다.

서비스업계에도 이런 바람은 몰아쳤다. 애경그룹의 유통사업부문인 AK플라자에서 고졸 신입 및 고졸 경력직 사원 40명을 모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졸인재 채용 10% 가까이 증가

이 처럼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고졸 인재 채용을 확대하면서 고졸자 취업률도 10%가까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국내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1년 고졸신입 채용결산'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560개 상장업체가 응했고,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고졸신입 채용규모는 7천519명으로 전년(6천860명)보다 9.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졸인재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졸신입 채용에 나선 기업은 총 183개사를 기록해 전년의 164개사에 비해 3.4% 가량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전년의 4천481명보다 3.6%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2천343명을 채용해 26.3%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고졸인재 채용이 활발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견기업에서 인재 채용이 더욱 많이 이뤄진 셈이다.

업종별로는 물류운수업에서 증가율 158.8%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기계·철강·조선·중공업(135.5%), 건설(77.2%), 식음료(22.4%), 자동차(12.1%), 금융(12.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제약(7.5%)과 기타 제조(1.7%)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규모 별로는 전기전자업종에서 총 3천222명을 뽑아, 고졸 채용시장을 주도했었다.

올해 채용문 더욱 확대될 듯

재계의 고졸인재 채용 움직임은 올 한해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확대하면서 재계의 동참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대학교육 과정을 밟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고졸 인재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를 향한 독려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 "고졸 출신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한 뒤 "고졸 인재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재계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했었다.

이 자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를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었다.

재계의 반응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올들어 국내 대기업 가운

데 고졸 인재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단연 한화그룹이 꼽힌다.

한화그룹은 오는 3월께 고졸공채 500명과 채용전제형 인턴 700명 등 고졸 신입사원 1천명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고졸 인재 1천명을 선발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고졸공채는 서류접수, 면접, 적성검사 등의 과정을 걸쳐 선발되며, 선발 대상은 공고, 마이스터고, 상고, 조리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어야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고졸 신입사원 채용의 기본 방침은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전제형 인턴 방식으로 요약된다.

채용전제형 인턴은 서류접수와 '한화인 적성검사'를 거쳐 한 차례의 면접을 통해 이뤄지는데, 우수한 고교생을 조기에 선발해 인재육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격자들은 2학년 여름방학 1주간의 그룹입문 교육에 이어 3주간의 인턴 프로그램을 거쳐 2학년 겨울방학과 3학년 여름방학에 현장실습을 받게 된다. 한화그룹은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졸공채와 채용전제형 인턴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에선 현대기아차그룹과 삼성그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전국 9개 마이스터고 학생 1천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그룹도 올해 상반기에 고졸 공채를 신설하기로 했다. 생산직과 사무직, 소프트웨어직 등 다양한 직군에서 고졸 인재 5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삼성그룹 측은 밝혔다.

금융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업협회 역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

보험, 여신전문업 등 금융권에서 올해 총 2천799명의 고졸인재를 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런 현상은 관광·외식업계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프리마 등과 고졸자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고졸 인재 채용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경북농협이 130여명의 고졸자를 채용하고, 대구은행도 신입행원의 일정비율을 고졸 출신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확대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고졸 인재 채용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북도가 고졸인재 채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교육당국과 손을 잡고 고졸자 채용 확대에 앞장서 취업률을 오는 2015년까지 지금보다 2배가량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졸자 채용과 지원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졸자 채용 및 지원,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최영우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등 기관 및 단체 대표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장단, 지역 기업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기술직 가운데 공업직과 농업직, 수산직 등 특정직렬의 3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군단위 지자체에 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연간 740명의 '청년명장'을 양성하고 고졸자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현재 29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고졸자 채용 박람회 개최, 비즈브릿지 사업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현재 26.1% 수준인 고졸자 취업률을 2015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틀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고졸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졸인재 채용 바람은 비단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동시에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올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를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채용하는 9급 기술직 공무원의 10%를 고교 졸업(예정)자로 선발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도 최근 협약을 맺고 지방공무원 선발시 기술직렬 등에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20%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공업, 해양수산, 보건 등 기술직 채용 인원의 20%를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자체에 기능직을 특별 채용할 경우 특성화고 등 고졸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다"면서 "고졸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포상 산업전문기자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국민들에게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알리고,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안이유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최근 개정(법률 제11084호·2012년 5월15일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절차와 등록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대한 미이행, 등록 취소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된다.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기술진단의 대상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안 제14조의3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안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시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5, 별표 6의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기타

환경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윤일형 편집위원

대한민국 300만 사장님들의 평생친구-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시 혜택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 · 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타(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Kbiz 대한민국 99%의 힘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결같은 이웃사랑 '훈훈'

지난 1995년 설립된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가 창사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나눔 실천경영을 목표로 지난 2006년 창단된 참사랑봉사단이 있다. 참사랑봉사단에는 현재 9개지부에서 직원 1천600여 명이 단원으로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자 주〉

참사랑봉사단은 크게 농촌봉사, 사회복지, 환경보호, 재난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이웃사랑'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엔 총 539회에 걸쳐 2천65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빛과 소금 사명을 묵묵히 담당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1만690시간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이보다 많아 699회에 걸쳐 총 2천68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촌봉사활동은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달성군 한정리와 청송군 월정리 등 두 곳이다.

참사랑봉사단은 도농 상생을 모토로 자매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수시로 열고 있으며, 아울러 농번기 양파, 마늘 등 주요 농작물을 수확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 봉사활동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참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매달 2~3회 찾아 목욕봉사 및 집수리와 함께 밑반찬을 전달하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부별 봉사활동에도 눈길이 쏠린다. 참사랑봉사단 시설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196가구를 고쳐줬다.

환경보호활동으로는 대구 인근지역의 등산로 정비 및 공원정화사업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고, 재난지원 봉사활동으로는 재난재해 발생시 복구인력투입은 물론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지난 2008년엔 1사1촌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엔 한국표준협회의 사회공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엔 '대구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구지역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도 받았다.

김인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나눔문화를 정착하고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량 사회복지전문기자

소비자물가 다시 들썩

석유제품, 채소, 과일류가격 상승세 지속 … 물가불안 가중

정부의 고강도 물가안정책에도 아랑곳 없이 연초부터 소비자물가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물가불안의 주범은 최근들어 가격이 많이 뛴 채소류, 과일류, 수산물과 함께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빠트릴 수 없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민족 최대명절인 설 대목과 함께 기습 한파가 몰아치면서 과일류와 채소류 산지 가격이 껑충 뛰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지난 1월17일 기준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지서 거래된 대구지역 시금치(상품 4kg) 도매가격은 1만1천원으로, 한달 전보다 4천원 뛰었다.

풋고추(상품 10kg)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날 대구지역 도매가격은 1년전보다 배 이상 오른 7만4천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파망(상품 10kg), 깻잎(상품 2kg)도 각각 2만9천400원, 5천원씩 뛴 5만8천원과 2만7천원에 판매됐다. 농산물 가격 강세 흐름은 소매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엔 설대목을 맞아 제수용 수요가 많은 과일가격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구의 대형소매점인 'H-마트'의 경우 사과(후지 중품 10개) 소매가격이 1개월전보다 4천740원 오른 1만6천700원에 거래됐고, 배(신고 상품 10개)소매가격도 3천65원 오른 2만9천330원에 판매됐다. 이날 대구지역 'N-유통'에서 거래된 단감(상품 10개)도 평년의 8천100원에 비해 2천860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중에선 물오징어(중품 1마리) 소매가격이 'H-마트' 기준으로 평년보다 111% 오른 3천280원에 가격대가 형성됐다. 소비자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 데는 치솟는 기름 값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기름 값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이에 따라 국내 도입 원유가격이 뜀박질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악재로 보인다.

석유제품 가격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휘발유가격은 ℓ 당 1천936.95원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도 ℓ 당 1천935.20원까지 치솟았다.

기름 값은 당분간 강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수급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이런 악재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상승폭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물가 오르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량 통계전문기자

“볼거리 많은 구미로 오세요”

금오산도립공원, 도리사 등 관광 명소 즐비

Wonderful
GUMI

**경북 내륙도시 구미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하면 좋을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천하는 구미 관광명소 4선(選)을 모았다.
〈편집자 주〉**

쌍암고택

구미 해평면 해평리에 위치한 쌍암고택은 조선 영조 7년(1731년)에 지어진 고택으로, 조선시대 대표 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당시 진사 최광익 선생이 분가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크게는 안채와 안대문채, 사랑채로 이뤄져 있으며, 대문채는 소실돼 근래에 대문을 새로 지었다. 안채는 ㄷ자형으로 동쪽을 향하고, 一자형의 대문채는 안채와 마주 향해 전체적으로는 트인 ㅁ자형 구조를 지닌다. 안채의 중심은 6칸 크기의 대청으로 이뤄져있다.

대청의 오른쪽에는 찬방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큰 규모의 안방과 부엌이 있다. 특히 안방을 안마당의 트인 곳과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조된 점이 눈길을 끈다. 사랑채는 대문채 바깥마당의 한단 낮은 터에 따로 뒀는데, 이 처럼 사랑방이 안마당과 분리돼 따로 배치된 것은 국내에서 드물게 조사되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청의 뒷면 2칸은 한단 높은 마루로 꾸며 위계를 두었다. 이런 구조는 경북지역의 양반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으로 평가된다.

금오산 도립공원

해발 977m 높이의 금오산은 구미와 김천, 칠곡에 걸쳐 있다. 정상 일대는 분지를 이루며 그 아래쪽은 칼날 같은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산세가 매우 가파르다. 금오산이란 이름은 아도(阿道) 화상이 어느날 이곳을 지나가던 중에 저녁놀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금오산은 지난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이다.

특히 단풍의 명소로 등산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일명 '금강'으로도 불리는데, 옛부터 경북 8경의 하나로 빼어난 산세를 자랑한다. 정상 부근에는 길이 2km 짜리 금오산성이 있으며, 이 산성 암벽 밑에는 약사암이 자리잡고 있다. 또 북쪽 기슭에는 고려 말 충신인 길재를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채미정도 있다.

금오산 북쪽 계곡의 중턱에는 의상대사가 수도했다는 도선굴이 있고, 북서쪽의 거대한 암벽에는 마애불도 새겨져 있다. 금오산 산행은 관리사무소에서 채미정을 지나 해운사에 오른 뒤 명금폭포와 애휴비, 약사암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를 이용하면 정상이 한눈에 펼쳐진다.

대혜폭포

대혜폭포는 금오산 중턱의 약 400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8m짜리 대형 폭포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이 폭포는 명금폭포로도 불리는데, 명금이란 '금오산을 울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폭포수 소리가 그 만큼 우렁차다는 얘기다.

'대혜'란 이름도 폭포수가 구미로 흘러들어 주민들에게 풍족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등 큰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폭포는 특히 폭포 자체도 웅장하지만 폭포 주변을 절벽이 둘러싸고 있어 주변 경치 또한 장관을 이룬다.

여름이면 이 폭포에서 물맞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빙벽을 등반하는 산악 스포츠 마니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도리사

도리사는 신라 최초의 가람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에 위치한 도리사는 해발 691m의 산중턱에 있다. 고색창연한 건물과 사적들이 주위의 울창한 소나무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도리사의 창건 시기는 신라 눌지왕(417~458년)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최초로 불교를 전하던 아도화상이 불교포교를 위해 경주에서 구미로 오다가 냉산 동남쪽 기슭에 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얏(李)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절을 창건해 그 이름을 도리사(桃李寺)로 지었다고 한다. 지난 1977년 4월 도리사 경내에 있던 세존사리탑을 해체, 복원하다가 금동육각사리함과 석가모니 사리 1과를 발견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도리사에는 극락전과 태조선원, 삼성각, 조사전이 들어서 있다. 극락전에는 17세기께 향나무로 만들어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조사전에는 아도화상 초상화가 봉안돼 있다. 극락전 앞뜰의 모전석탑모양의 화엄석탑은 보물 제470호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화엄석탑 옆으로 난 쪽문으로 나가면 아도화상이 도를 닦았다는 좌선대가 있다. 높이 1m에 한 평 남짓한 좌선대는 네개의 자연석이 받치고 있다.

절 뒷산에는 고려태조 왕건이 축성했다는 숭신산성 터가 남아있고, 인근에는 낙산리고분군, 의구총 등 유서깊은 역사·문화자원이 즐비하다.

장승욱 기자

“구수한 맛에 반하고, 저렴한 가격에 또 한 번 놀란다”

대구 대표 청국장 요리전문점 ‘송원식당’

◇장영수 대표

입맛이 없을 때 떠오르는 구수한 청국장 요리가 생각난다면 대구 수성구 중동의 대구파이낸스센터 부근에 위치한 토속음식 전문점인 송원식당을 찾으면 어떨까.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청국장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구 대표 토속음식점으로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식당에는 아침·점식·저녁식사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붐비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구수한 맛이 일품인 토속음식인 청국장 본연의 맛을 가득 느낄 수 있어서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에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 트렌드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20년 전통의 송원식당에서는 국내산 콩을 이용해 청국장을 직접 띄워 손님상에 내놓고 있다. 공장에서 주문을 받아 사용하는 여느 식당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입안 가득이 퍼지는 그 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구수하고 뛰어나다.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청국장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토속음식점이 바로 송원식당이다.

얼마만큼 그 맛이 뛰어날까. 그 옛날 어머니가 차려주던 청국장 바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맛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있다. 미식가로 소문난 유명 연예인들까지 자주 찾을 정도인데, 식당 입구 계산대 부근에는 박상민, 전유성, 조영남 등 인기 연예인들의 사인글도 가득 채워져 있다.

송원식당의 자랑거리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뛰어난 맛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은 반대로 매우 저렴하다. 청국장 정식 1인분 가격이 고작 5천원에 불과하다.

송원식당 장영수(58) 대표는 벌써 18년째 이 가격을 고집하고 있다. 경기불황 속에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진 서민들을 생각하

면 가격을 올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볼품없는 반찬들로 손님상을 차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국장을 빼고도 콩비지찌개, 꽁치조림, 나물무침, 도토리묵 등 반찬 가지수만 무려 16~17가지를 헤아린다. 청국장과 함께 나오는 반찬은 그날그날 식재료를 바꿔가며 손님상에 차려지고 있다. 하나 같이 일등품 식자재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으며, 경력 10년이상의 베테랑 주방 아주머니들의 손맛과 정성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청국장 요리지만 송원식당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손님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의외로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는데, 20~40대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송원식당 측은 귀띔했다.

장영수 대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이윤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음식 맛도 뛰어나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히 대하는 덕분에 단골손님도 유난히 많다"고 흐뭇해했다. 민경량 기자

'웰빙 축산물' 전국적 명성

'구미별미 참돈', '풀마실 요구르트' 등 친환경 부각 인기

구미시가 명품(名品) 축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등급 돼지고기 브랜드인 '구미별미 참돈'과 신선도를 강조한 친환경 기반의 '풀마실 요구르트' 생산을 통해서다. 〈편집자 주〉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돼지고기 브랜드인 '구미별미 참돈'은 웰빙족 사이에서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국내 양돈농가 중 드물게 생균제를 돼지에 먹여 사육하고 있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데 있다. 생균제는 장내의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주는 등 숙주동물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로 주로 항생제와 반대 개념을 의미한다.

'구미별미 참돈'은 뛰어난 맛도 인정받고 있다.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육질이 우수하고 식감이 뛰어난 때문이다. '구미별미 참돈'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맛있고 영양 많은 구미 돼지고기'란 뜻을 담고 있다. 이 고급육은 지난 2006년부터 금오산 바이오포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현재 돼지사육농가 1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출하 마릿수는 대략 2만두를 헤아린다. 사육마릿수는 1월 현재 3만두 규모다.

풀마실유가공영농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풀마실 요구르트'도 구미를 대표하는 유제품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자랑한다. 목장에서 바로 가공해 신선도가 뛰어난 때문이다. 여기에다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가 많은 블루베리를 넣어 맛의 고급화도 강조했다. '풀마실 요구르트'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구미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몫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 옥성면 초곡리에 위치한 풀마실유업에서 지역내 농축협 조합장과 축산단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목장형 유가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목장형 유가공장이 들어선 것은 경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억7천만원을 투입해 완공한 이 유가공장에는 요구르트 제조시설 외에도 치즈생산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북도로부터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은데 이어 그해 8월엔 축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한 농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 지정받았다.

엄명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위생과정을 거쳐 신선도를 강조한 일등품 목장 발효유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욱 산업전문기자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미시 상모동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고 박정희 대통령생가.
구미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이곳은 박 대통령을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 구미시청

지난해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 곤두박질

유럽발 악재 등 영향…채권형펀드 플러스 수익 '선방'

지난해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반기에는 이른바 자동차, 화학, 정유산업을 일컫는 '차화정'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절대수익형', '레버리지' 등 고위험 펀드 위주로 수익률이 좋았지만, 8월들어 유럽발(發) 악재가 불거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올해 1월2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은 -12.00%를 기록, 역신장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감 확산 속 8월부터 급락

지난해 상반기 국내주식형펀드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일본 대지진 충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8월 초부터 급락장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8월 한달 간 펀드 수익률은 -12.28%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월별로 연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9월부터는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됐고, 결국 하반기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은 두자릿수 이상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성과를 살펴보면 배당주식 펀드가 -11.81%로 실적이 가장 좋지 못했고, 순자산가치기준으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62%를 차지하는 일반주식 펀드 또한 -11.56%를 기록,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KOSPI200인덱스 펀드도 -10.91% 역신장했다.

수익률이 이 처럼 곤두박질 친 것은 이 기간 코스피 대형주의 폭락장세가 지속 된 게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소형주 펀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주 선방이 이어진 덕분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소형주 펀드 수익률은 0.80%를 기록해 유일하게 플러스 신장세를 나타냈다.

플러스 실적 펀드 '가뭄에 콩나듯'

개별 주식 펀드 중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년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593개 가운데 지난해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펀드는 고작 49개에 그쳤다. 또 코스피 성과를 상회한 펀드는 258개로, 전체 펀드의 43.5%에 불과했다.

다만 상반기 대세를 이끌었던 '차화정'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관성이 높은 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동안 2조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삼성KODEX자동차 상장지수[주식]' 펀드는 연간 22.50%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투자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 자동차 관련 업종의 강세 영향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아울러 자동차 업종 ETF펀드 중에선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 펀드도 연간 13.24%의 수익률을 보이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실적 하위권 톱10 펀드로는 레버리지 펀드를 포함한 기타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락 장세에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져 코스피 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하락폭을 보인 탓에 최고 30% 이상까지 급락하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 은행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ETF펀드도 하위권까지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이 중 '삼성KODEX증권주 상장지수[주식]' 펀드는 -43.40% 수익률을 기록하며 바닥권을 맴돌았다.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대체로 '양호'

지난해 국내 채권형 펀드는 평균 4.5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도 현상이 두드러진 덕분이다.

지난해 초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대외 악재로 금리 하락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련 펀드상품이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유형 별로는 중장기물 강세 영향으로 일반 중기채권의 경우 연간 수익률만 4.93%를 기록,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년 이상인 54개 채권펀드 모두가 플러스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은 중기채권형 펀드가 가장 좋았다. '미래에셋엄브렐러 전환(채권)종류C-i' 펀드는 1년 동안 6.14% 수익률을 보여 채권형 펀드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국공채 및 준국채 등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삼성ABF Korea인덱스[채권](A)' 펀드와 '미래에셋개인연금 전환1(채권)' 도 5%를 웃도는 수익률을 올렸다.

제로인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유로존 신용경색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면서 "다만 채권형 펀드는 안전자산 선호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포상 금융전문기자

대구백화점, 남성고객잡기 분주

남성쇼핑족 겨냥 마케팅 확대

대구·경북 간판 유통업체인 대구백화점이 남성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화점을 찾는 남성 쇼핑객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대구백화점은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고객들을 겨냥해 관련 마케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진화하는 남성의류 매장

대구백화점의 남성의류 매출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지난 2009년 5.5% 신장한데 이어 2010년엔 22.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높은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백화점 측은 추산하고 있다. 남성매장은 최근들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2009년 프라자점 남성매장에 대한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정장 비중을 기존 50~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캐주얼 의류와 액세서리 비중을 50% 안팎까지 끌어올렸었다.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남성 고객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프라자점 남성매장에 다 최근 원스톱 쇼핑공간 '듀퐁 클래식'을 오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듀퐁 클래식'은 기존의 듀퐁 드레스셔츠와 함께 언더웨어, 손수건, 머플러, 양말, 타이 등 섬유토털 전문 매장으로 단장돼 남성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남성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COLLECTION', 'BUSINESS', 'SPORTS', 'PARTY' 등 총 4개 라인으로 구성한 게 인기의 비결로 보인다. 여러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 매장 저 매장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남성 고객들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두텁다고 한다.

대구백화점은 아울러 남성 전문 잡화매장과 함께 액세서리 편집매장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오픈한 '니나리치 맨즈 ACC' 매장이 대표적이다. 토털 코디네이션을 제안하는 '니나리치 맨즈 ACC'는 감각적인 소비생활을 즐기고 멋을 아는 이른바 30~40대 '댄디족'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밖에 120년 전통의 독일 핸드메이드 가죽 토털 브랜드인 '브라운 버펄'(BRAUN BUFFEL), 데스크용품 기프

트숍인 '오롬시스템즈'(OROM SYSTEMS)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화장하는 남성도 증가

지역 유통가에서는 남성용 화장품 매출도 최근들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본점과 프라자점의 남성 화장품 매출은 최근들어 연 평균 20% 이상씩 가파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꽃미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하는 남성이 늘어난 덕분이다.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화장하는 남성은 최근들어 2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구백화점 측은 전했다. 이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듯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과거 스킨과 로션에 한정된 데서 벗어나 주름 완화크림, 미백 에센스아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비비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관련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 중 프라자점에 입점해 있는 '랩시리즈'는 대구백화점을 대표하는 남성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로 이름이 높다. '랩시리즈'에서는 올 시즌을 겨냥해 피부를 화사하고 맑게 개선해주는 브라이트닝 제품 3종, 자외선 차단 및 보습 효과를 동시에 갖춘 BB크림, 피부 개선 효과가 탁월한 '맥스 LS 모이스춰 로션' 등 신제품을 이미 내놓거나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남성용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화장품 브랜드 '헤라', '오휘', '비오템'에서는 전체 화장품 중 남성용 제품 비중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제품 종류 또한 기존의 스킨, 로션에 그치지 않고 아이크림, 클렌징, 에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SK-II' 또한 최근 남성용 브랜드 론칭과 함께 남성 라인을 대폭 보강하고 있으며, 올시즌 신제품 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성전용 휴게시설 속속 등장

지역 유통업계에선 남성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도 속속 조성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의 경우 최근 프라자점에 남성 전용 휴게공간을 조성한 데 이어 본점과 프라점에 차(茶)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이와 함께 프라자점 6층에 최근 등산을 좋아하는 남성 고객들을 위한 아웃도어·스포츠 전문관을 단장하고 레코드숍을 테마로 한 고객 쉼터도 제공하고 있다. 쇼핑 고객 휴게시설로 꾸며진 이 쉼터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고 안락한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대백프라자점 남성팀 박효진 팀장은 "남성고객을 위한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매장개편 시 남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신규 브랜드 입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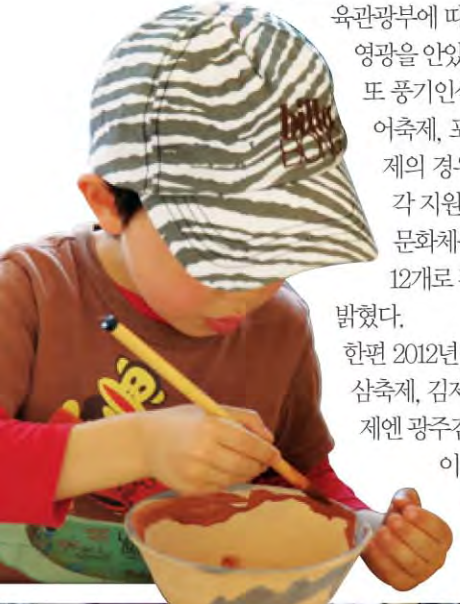
민경량 유통전문기자

대구·경북 대표 축제 문화관광축제에 잇달아 선정

대구·경북지역 대표 축제가 줄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문가 심사와 축제 현장 평가를 토대로 2012년 문화관광축제 4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문화관광축제는 크게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등 총 4등급으로 선정돼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2년 문화관광축제 중 대구·경북지역에선 '문경찻사발축제'가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 풍기인삼축제는 우수 축제에 뽑혔다. 유망 축제에는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등 총 4개 축제가 선정됐다. 올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축제는 등급별로 대표 축제의 경우 8억원, 최우수 축제는 3억원, 우수 축제 1억5천만원, 유망 축제 4천만원씩 관광진흥기금이 각각 지원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선 해외 홍보 및 축제 컨설팅 지원도 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올핸 우수 축제를 지난해보다 2개 늘려 12개로 확대하고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힌 것을 감안해 유망 축제도 1개 추가로 더 뽑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대표 축제에는 강진청자문화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영예가 돌아갔다. 최우수 축제는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8개 축제, 우수 축제에는 강경젓갈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등 12개 축제, 유망 축제엔 광주김치대축제, 괴산고추축제 등 23개 축제가 각각 뽑혔다.

이번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축제에 뽑힌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그간 경북도 우수 축제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축제, 유망 축제, 우수 축제 등을 잇달아 거머쥐는 등 각종 상을 휩쓸고 있다. 이 축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

질적 완성도가 높은 일반인 참여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예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등 차별화 전략이 인기의 비결로 평가된다. 우수축제에 뽑힌 풍기인삼축제는 영주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축제로, 웰빙시대에 걸맞게 인삼을 테마로 해 건강에 관심이 높은 웰빙족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다.

'천년건강 풍기인삼'을 주제로 한 지난해 풍기인삼축제는 지난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승욱 기자

대구·경북 상장주식 회전율 시장별 명암 교차

유가증권시장은 줄고 코스닥시장은 큰 폭 확대

지난해 대구·경북의 상장주식 회전율이 시장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회전율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회전율은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201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은 296.43%를 기록해 전년보다 22.7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 1주당 약 3차례 매매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반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343.76% 포인트 증가한 809.05%로 확대됐다. 1주당 매매가 8번 가량 이뤄진 셈이다. 주식회전율은 당일 거래량 규모를 기준으로 전체 상장주식수의 연간 회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장법인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천%이상 회전율을 보인 주식은 2010년 1곳에서 2011년엔 단 한 곳도 없었다.

같은 기간 500~1천% 미만 상장법인은 4곳에서 5곳으로, 1곳 늘어났다. 또 200~500% 미만은 전년과 변함없이 12곳으로 같았고, 100~200% 미만은 8곳에서 5곳으로 3곳 감소했다.

50~100% 미만과 50% 미만은 각각 1곳과 3곳씩 증가한 5곳, 4곳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500% 미만에서만 20곳에서 12곳으로 8곳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1천%이상(2→6), 500%~1천% 미만(11→12), 100%~200% 미만(11→15), 50%~100% 미만(5→9), 50% 미만(4→6)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주식 회전율 상위 10위 업체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성안이 949.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우리들생명과학(934.54%), 체시스(783.32%), 대호에이엘(701.46%), 이수페타시스(625.41%), 조선선재(480%), 쌍용머티리얼(408.75%), 대성에너지(365.96%), 에스엘(285.86%), 동원금속(283.29%)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미주제강(2천861.14%), 서한(2천502.28%), 홈센타(2천081.91%), 액트(1천896.73%), 시노펙스(1천436.08%), 우경철강(1천124.70%), 보광티에스(789.59%), 화성(753.69%), 아바코(730.47%), 케이씨피드(635.31%) 순이었다. 이들 상장법인의 연간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면 성안은 139.26%를 기록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우리들생명과학(11.74%), 체시스(44.23%) 등도 올랐다.

이와 달리 대호에이엘과 조선선재는 -26.73%, -27.50%씩 주가가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홈센타(120.66%)와 케이씨피드(35.70%) 등은 상승한 반면 우경철강(-74.06%), 미주제강(-34.53%) 등은 하락했다.

회전율 하위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세원정공(25.83%), 조일알미늄(29.64%), 평화홀딩스(32.94%) 순으로 낮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삼보모토스(9.29%), 대구방송(14.44%), 세원물산(24.55%)이 1~3위를 차지했다.

이포상 산업전문기자

경북 '귀농 일번지'

전국에서 귀농인구 가장 많이 몰려

경북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공직 등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까지 2년간 경북지역의 귀농인구는 총 2천23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천118명, 2010년 1천112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귀농인구가 많은 지자체로는 경북에 이어 전남(768명), 전북(611명), 경남(5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경우 전체 귀농인구의 27%를 차지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경북은 지난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간의 귀농인구도 3천62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귀농인구의 연령대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50~59세가 1천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49세 1천229명, 60세 이상 769명, 30~39세 553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들어 귀농인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0~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귀농인구를 살펴보면 2000년(1천154명), 2001년(880명), 2002년(769명), 2003년(885명), 2004년(1천302명), 2005년(1천240명), 2006년(1천754명), 2007년(2천384명), 2008년(2천218명), 2009년(4천80명), 2010년(4천67명) 등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도별 귀농인구를 예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귀농가구 수는 6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0% 가량 급증한 것이다. 귀농인구의 직업은 직장 은퇴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제대군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전남 등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 귀농인구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년을 맞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귀농이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 거주 베이비부머의 약 66% 가량이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약 14%는 5~10년 안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경량 통계전문기자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www.KEP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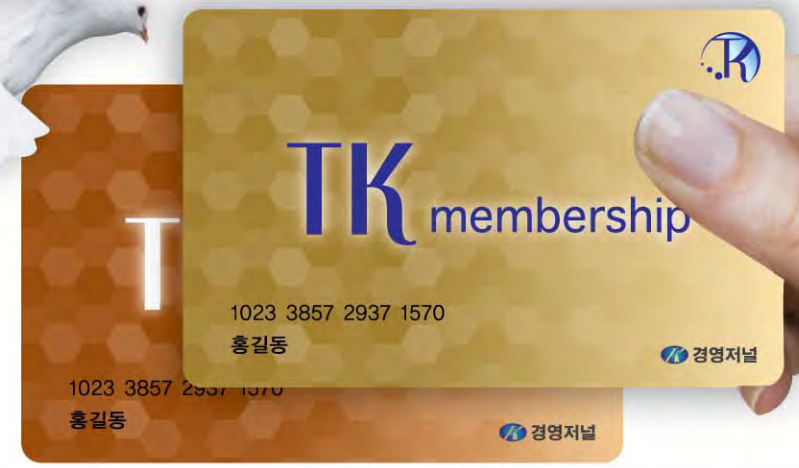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
공기업·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검토기관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경영저널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제휴가맹업체를 모집합니다.



프리미엄 광고·홍보 혜택

- 경영저널은 TK멤버십카드 제휴가맹업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지면, 홈페이지)을 통한 쌍방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맞춤형 광고 게재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휴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경영저널 카드사업본부 Tel.053-766-1368